

이택순 청장 베트남 공식 방문

-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 대비 대테러 협력 강화 -



이택순 청장 일행이 레홍안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있다.

이택순 경찰청장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베트남을 공식 방문,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제14차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대테러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귀국했다. 이 청장은 방문기간 중인 지난 8월 29일 레홍안 공안부 장관과 치안총수 회담을 갖고 APEC 대비 집회관리 및 위해요소 안전

조치 등 대테러 협력 방안과 사이버, 마약, 조직범죄 등 국제범죄 척결을 위한 양기관 간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점차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체류 우리 교민과 상사원에 대한 안전 확보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인 밀집지역인 호치민 공안국을 방문하여 우리 교민과 관광객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 및 오는 9월 중순 (주)호치민 총영사관에 파견되는 경찰 주재관과의 긴밀한 협조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방문으로 교류협력 약정 체결국인 베트남의 성공적 APEC행사 지원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경찰의 위상을 제고하고 재외국민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등 한중 업그레이드 된 치안외교를 전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학수사 역량 강화한다.

경찰청, 의학박사 등
검시 전문가 29명 선발

경찰청이 최근 연간 2만여건에 달하는 범죄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사인규명과 효율적인 검시시스템, 수사시스템 확보를 위해 검시 전문가 29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검시 전문가들은 의학, 간호학, 임상병리학, 생화학, 수의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분야 전공자로서 7급의 경우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0명을 모집한 가운데 박사 학위 소지자 등 76명이 지원 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9급의 경우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19명을 모집한 결과 756명이 응시하여 39.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 검시 전문가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경찰관서 실습 등 1년간의 다양한 실무중심 교육을 마치고 각 지방청 및 경찰서에 분산 배치될 예정으로, 범죄 현장에 입장해 과학적인 사체 감식활동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인을 규명하고, 검안, 부검의 및 담당 수사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검시시스템 확보로 과학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2004년 검시관 제도를 도입키로 한 이후 2005년 18명을 선발하여 각 지방청에 배치하였고, 내년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검시 전문가를 추가로 선발해 과학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시 도약 하고 있는 보안경찰

변화환경에 걸맞는 보안경찰로 거듭난다.

- 안보홍보 매뉴얼 개발 등 이미지 변신 시도 -

“안보 한 뜻 대한민국 힘찬 내 나라”

경찰청 보안국이 새롭게 만든 안보홍보 문구중의 하나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국문을 모으고, 튼튼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힘차게 세계 속의 강국으로 나아가자」는 의미이다.

최근 경찰청 보안국은 변화환경에 걸맞는 이미지 변신의 일환으로 안보홍보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에 하달했다.

이번 매뉴얼은 그동안 안보홍보 입간판의 디자인 및 홍보 문구 등이 현안보상황에 맞지 않아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 이미지를 활용한 표준모형을 개발해 일선에서 활용하기 편리 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새롭게 디자인된 입간판은 배경 이미지 사진을 자율적으로 선택 사



경찰청 보안국이 최근 개발한 안보홍보 매뉴얼

용도로 함으로서 지역사랑 고취와 홍보효과 극대화를 꾀한 가운데, 자연스러운 신고의식 함양과 친근한 경찰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새로운 안보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홍

보문구를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경찰의 역할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쉽게 의미전달이 가능한 최적의 문구 12자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보안국 관계자는 입간판 설치에 관해 『유동인구가 많은 고속도로 및 공항만 진출입로 등 주요 도로변에 우선 설치토록 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한편 주위환경과의 조화도 이루도록 해 미관을 해치거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금년 9월까지 각 지방청별로 이 입간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전국의 모든 홍보 입간판을 교체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자연스러운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한편 친근한 경찰 이미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시책개발로 요원들의 실력향상 도모

보직공모제 및 한국어 능력시험 실시

「지식 정미소」 운영, 보안협력위원회 구성

사실 그간 보안경찰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국내외 정치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변화 및 인력감축 등 시련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북분단이라는 상황과 보안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더 이상 인력의 축소는 곤란하다는 견지에서 직업 경찰관 정원의 약 2.3%선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보안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당사자인 경찰청 보안국은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업무능력 향상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관련 보안국은 유능한 요원의 확충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보직공모제를 실시하는 한편 보안요원들이 주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식 정미소」(별

책)를 탈북해서 백미를 얻듯이 도서를 이용해 신지식을 얻는다는 의미)란 내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 게시판에는 「벗가리」와 「햇살가마」란 문구가 붙어 있는데, 일명 「벗가리」는 도서안내코너로 신간도서 등을 소개하는 곳이며, 「햇살가마」는 감상문을 게시하는 곳이다.

이 「햇살가마」에는 책을 읽고 자율적으로 감상문을 써 놓으면 시간에 쫓겨 책을 읽지 못하는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요지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업무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안국 직원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한국어 능력시험」응시의 권장이다.

본청 보안국 및 지방청 근무자들중 희망자에 한해 「KBS」 및 「한국언어문화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이 시험을 응시토록 함으로서 수사서류 작성 혹은

사이버 문구의 분석 등 보안 수사요원들의 자질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부처에서는 처음으로 일괄 도입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또한 보안협력위원회의 구성도 빼놓을 수 없는 업무혁신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민간 보안위원들을 위촉해 이들이 민간차원에서 탈북 주민들의 남한사회 조기정착을 도와주는 제도로, 최근 북한 이탈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전국 31개 경찰서에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욱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러한 보안경찰의 업무혁신은 분단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큰 축을 담당해 왔던 그들이 특유의 근성을 바탕으로 시도한 새로운 도약으로 향후 남북교류의 확대, 탈북자의 증가, 사이버 불법통신의 증가 등과 더불어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보 한 뜻 대한민국 힘찬 내 나라

아직도 후진국 수준의 불법폭력 시위인가?

1. 이제 후진국형의 불법폭력시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테러」에 가까운 집단행동에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
- 진압경찰 투입반대와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시위진압이 불법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2. 지구상에 警察과 軍이 매 맞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 불법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과 군인을 향해 쇠파이프와 죽봉으로 무차별 공격을 일삼는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 공권력은 민주국가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것이며 경찰은 바로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다.

3. 불법행동에는 예외 없이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해야 합니다.

- 방패만 들고 불법폭력시위대에게 공격당해 쓰러지는 초라한 경찰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 최루가스 장비는 폭력시위대와 경찰간의 물리적 충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경찰에게 공인된 장비이며, 이제 민주화가 성숙된 상황에서 불법폭력시위대에 대한 최루가스 사용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4.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준법평화시위를 권장하고 적극 보호해 자발적 평화시위문화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 한국 노동운동은 폭력의 관성을 깨고 대화와 타협의 선진노사문화 정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5. 경제를 되살려 번영된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 불법폭력시위를 근절시켜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고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이룩하자.
- 「평화적인 시위문화정착」으로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06년 9월 8일

大韓民國在鄉警友會